



교회 사역에서 영화를 어떻게 볼까?  
캐서린 바르소티(Catherine Barsotti)

## 영화를 영화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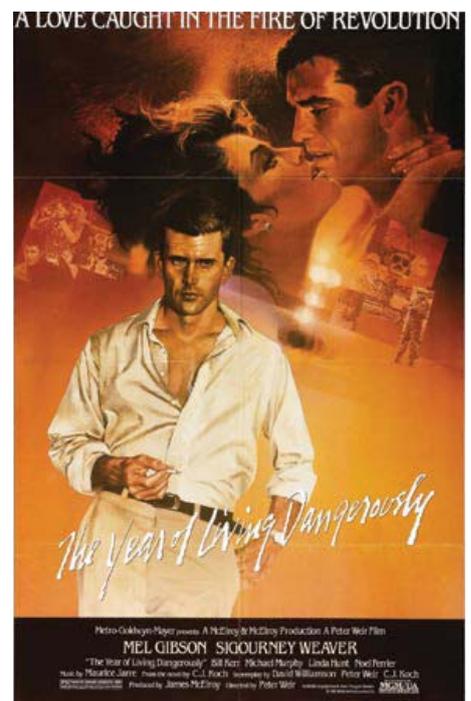
번역 및 감수\_신국원(총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시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포커스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으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실천적인 질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두 가지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들어라!” 라고 외치는 선포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변증적인 신학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증적인 신학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접촉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영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 도구이자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IVF 선교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졸업 후 주변 분들은 당연하게 제게 간사로 섬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깥 세상으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경제학 전공을 살려 미국에서 꽤 큰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4년간 일하면서 도대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즈음, 그때 친구와 <가장 위험한 해>(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1983)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네요.

이 영화는 극심한 빈곤과 좌우의 이념의 대결로 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면서特派원들이 취재하러 들어가는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초창기 무명시절에 찍은 영화인데 신참 해외特派원 해밀턴으로 등장합니다. 신참 기자인 해밀턴의 머릿속은 특종을 터뜨려서 유명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지독한 가난에 찌들어 죽든, 압제에 시달리든 그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화의 다른 주인공인 사진기자 빌리는 해밀턴이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해밀턴을 슬림에 데리고 들어가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빌리는 그에게 현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게 도와라고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여전히 초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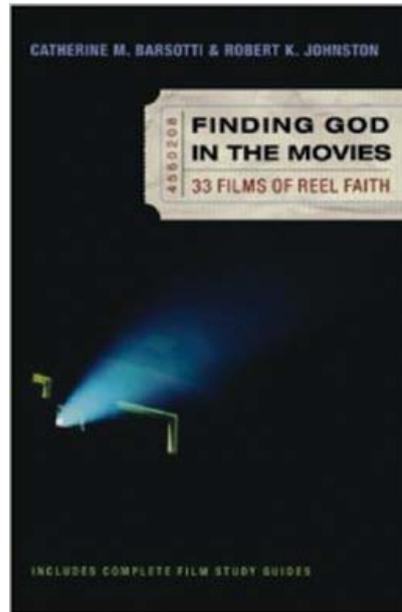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1983

에 유명해질 생각만으로 가득해서, 나는 이곳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러 온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빌리가 누가복음 3장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회개하라 외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대답합니다. 또 세금을 걷는 자는 정당하게 걷고, 군인이라면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빌리는 단순히 말뿐 아니라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여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화 곳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충실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슬럼가의 한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쌀을 가져다줍니다. 그 집 아이가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이 나자 병원에 데려가라고 돈도 줍니다. 빌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한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나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심지어 동남 아시아에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아이의 큰 눈을 보는 순간 대학생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농장의 농업용수를 마실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빌리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그런데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누가복음 3장 설교를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영상 설교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저는 제가 속한 소그룹에 누가복음을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 제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멕시코의 가난한 동네를 섬기기로 걱정했습니다. 이 영화가 제 삶에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 제 은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 어떻게 영화를 목회 사역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영화를 설교의 예화로 사용합니다. 영화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사용될 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서서히 비주얼 스토리텔링,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 Barsotti, Catherine M., Johnston, Robert K.

제가 쓴 책 중 『영화에서 하나님을 찾는다』(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영화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 중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했던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창끝>? 글썬요, 혹시 <쇼생크 탈출>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19세 이하 관람 불가입니다만,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이고,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며 인간 존엄에 관한 이야기여서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를 보고 나눠야 할까요?

## 세대를 아우르는 힘

영화는 특히 청소년 사역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세대 간의 사역”에 힘이 있습니다.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영화 속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든, 가정 사역부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화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화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모임을 이끌도록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화를 보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한번은 어떤 한국 학생이 집을 먹더군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LA의 아주 전통적인 한국 교회인데 보수적이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임목사님께 가서 의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한 후, 기도회 시간에 영화 수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심야기도회에는 어른들만 모이기에 다양한 연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광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어떤 영화를 볼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엑스맨>(X-men)을 볼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맨>은 1950년대 만화에 기초한 슈퍼 히어로 액션영화거든요. 그러나 학생이 그것을 선택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숙제를 했고, 이후 굉장히 기쁨에 차서 이야기하더군요. 기도회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도 오셨고, 아이들도 광고를 보고 부모님과 함께 왔다고요. 원래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날 100명이 넘게 와서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고 말입니다.

영화는 돌연변이로 인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파악하여 법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하는, 일종의 찬성과 반대의 청문회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돌연변이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여 인류를 복되게 하려는 사람들과 악하게 사용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에 관한 영화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상한 사람들, 돌연변이들의 영화를 보여주니 영화가 끝나고 한동안 교회 안에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 영화를 보던 16살 된 아이가 “영화 너무 좋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 학생이 “뭐가 좋은데?” 하고 물었더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일어나서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 다른 아이가 답했답니다. 자신도 돌연변이처럼, 별종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회중에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아주 나이 많은 여자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

지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50년 전에 자신이 이곳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했을 때, 자신이 바로 별종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입니다. 이민자로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룹을 나누어 별종이라고 느꼈던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어려웠던 그 순간 누가 그리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략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시가 넘어도 계속되어 결국 목사님이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세 번은 기도회하고 한 번은 영화를 보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기독교 영화나 대단한 영화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세대 간 대화,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등 어떤 환경에서든 말이죠.



기독교 영화나 대단한 영화가 아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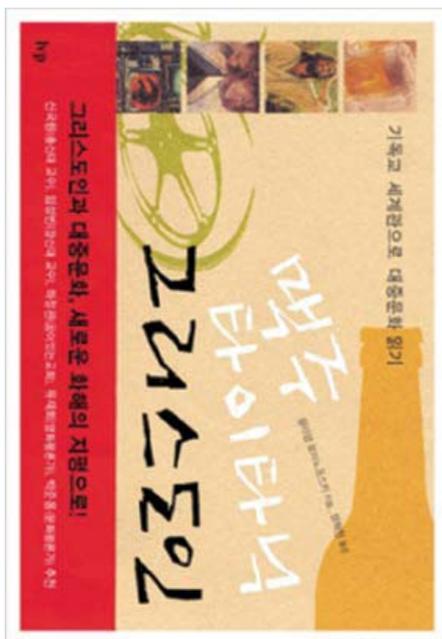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세대 간 대화.

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등

어떤 환경에서든 말이죠.



함께 보면 좋을 책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IVP.

### 공동체로의 초대, 영화 밖으로의 초대

영화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희 집에 성경공부 하러 오세요.” 라고 초청하면 부드럽게 “못 갑니다.”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확 닫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인 존스톤 교수(Robert Johnston, 플러신 학대)와 함께 부담스럽거나 꺼끄럽지 않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초청해 보았습니다. 이웃도 초청하고, 제가 운동하는 시설의 분들도 초청하고, 교회의 교우들도 몇 분 초청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는 음식을 나누는 식사에 관한 영화였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주제에 맞춰 그날의 식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면 이탈리아 음식, 중국 영화면 중국 음식,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멤버가 바뀌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함께하기 위해 등록하고 기다리는 대기목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의 답을 얻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는 그룹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나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깊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미혹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후, 한 여학생이 달려와 질문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파이이야기>(Life of Pi)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파이이야기>의 표면적인 내용은, 난파한 배에 호랑이와 단 둘이 남은 주인공이 잡아 먹힐까봐 배 밖에 매달린 채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별이 가득한 밤에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마르크스 철학을 공부하는 그 친구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삶에는 철학 이상의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 더 큰 게 있고,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캠퍼스 건너편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다니는 여학생을 찾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화로 소통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하는 것 중 하나가 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영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8개국 여성들과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스페인어를 쓴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문화권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영화를 보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보다보니 수용하는 내용과 인지가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영화가 오해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토론과 더불어 영화를 본다면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자신들이 어떤 유형에 처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볼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도망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해야하지 않을까요? 



### 캐서린 바르소티 박사

평생 경제학과 신학을 접목하는 작업을 해 왔다.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학, 영성 분야에 대한 강의와 영화 평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Finding God in the Movies: 33 Films of Reel Faith>가 있다.

\* 본 내용은 IVP와 풀러신학대학원이 협력하여 진행한 세미나의 내용이며 IVP의 협조로 게재되었습니다.